

북한 박물관 등 미공개 자료 눈길

한국박물관 성립부터 정리한 '한국박물관 100년사' 출간

한국 박물관 100년 역사가 한국인의 책으로 집대성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과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전보삼)는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 박물관 100년사>(사회평론 펴물)를 발간했다.

책은 '본문'과 '자료편' 2권으로 구성됐다. 집필진으로는 최광식 관장을 비롯한 박물관 연구·종사자 등 전문인력 40여 명이 대거 참여했고, 지면적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12인의 김수위원이 김수를 맡았다.

'본문'은 한국 박물관 성립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4부에 걸쳐 편년순으로 편찬했다. 제1부에서는 근대적 박물관의 기점이 되는 1909년 제실박물관 개관에서부터 1945년 광복 이전의 박물관·미술관사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제2부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까지 발전해 온 국·공·사립·대학박물관 역사가, 제3부에서는 미술관사, 제4부에서는 한국박물관협회

비슷한 박물관 관련 단체, 학술단체의 활동과 ICOM한국위원회의 활동을 개재했다. 또, 부록으로는 북한의 박물관과 미술관, 우리문화재의 해외전시, 국외한국학, 한국 박물관 100주년 기념사업, 한국 박물관 연표 등을 수록했다.

책은 '본문'과 '자료편' 2권으로 구성됐다. 집필진으로는 최광식 관장을 비롯한 박물관 연구·종사자 등 전문인력 40여 명이 대거 참여했고, 지면적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12인의 김수위원이 김수를 맡았다.

'본문'은 한국 박물관 성립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4부에 걸쳐 편년순으로 편찬했다. 제1부에서는 근대적 박물관의 기점이 되는 1909년 제실박물관 개관에서부터 1945년 광복 이전의 박물관·미술관사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제2부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까지 발전해 온 국·공·사립·대학박물관 역사가, 제3부에서는 미술관사, 제4부에서는 한국박물관협회



지난해 11월 2일 열린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박물관사를 소개하고 있다.

도 책에는 40여 편의 학술논문과 그 논문과 연계된 고문헌 자료, 일제 강점기 사진과 미 군정기 문서, 일본의 반환문화재 목록 등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자료들이 원색 이미지로 수록됐다.

이처럼 한국 박물관 100주년 추진위원장은 추사에서 "랜드마크라는 상징적인 건물보다 마인드마크가 되는 박물관이 더 중요하다"

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마인드마크로서 박물관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한국 박물관 100년사를 책으로 정리하고 편찬한 것은 미래 100년의 길을 묻는 데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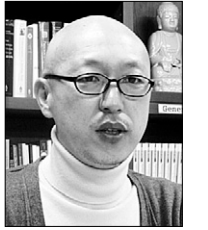
최광식 관장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박물관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향후 한국 박물관과 미술관의 발전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더 편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09년 11월 1일 제실박물관이 창경궁에서 문을 열며 시작된 한국 박물관은 현재 국립박물관 27개관, 공립박물관 258개관, 사립박물관 222개관, 대학박물관 115개관, 국·공립미술관 31개관, 사립미술관 98개관, 대학미술관 8개관 등 800여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돼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학술프로그램·아동센터 등 운영

개관 3주년 불교영어도서관 신년사업 계획 발표



개관 3주년을 맞는 불교영어도서관이 불교학 관련 목록 제공 등 학술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불교영어도서관(Buddhist English Library of Seoul, BELS, 관장 이승욱)은 1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도서관장이 된 이승욱 관장(사진)은 "불교영어도서관에서 가장 알맞은 일은 무엇일지를 고민했다"면서 "우선 불교영어도서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리는 한편, 도서관의 역할에 걸맞은 학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을 신년 목표로 삼았다"라고 밝혔다.

불교영어도서관의 학술 프로그램은 국내 불교학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학술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진다. 동국대·서울대 등 국내 대학의 불교학·선학·인도철학·종교학과 등 불교학 관련 전공에서 연구 중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도서 목록과 학술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영어권의 불교학 관련 우수 논문을 선별해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국내외 불교학계의 교류에 힘쓰기로 했다.

불교영어도서관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한 국내 우수논문의 영문화 사업도 눈에 띈다. 불교영어도서관은 매년 국내 불교학자의 우수논문 10여 편을 선정해 영문화하고 이를 책으로 만들어 외국 불교 학자와 불교단체,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목록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과, 홈페이지 검색기능 추가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승욱 관장은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은 단순한 서적류 대충업무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불교영어도서관의 영역을 확장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불교영어도서관은 학술 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

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외국인 스님 등 자원 봉사자를 활용해 지역사찰 및 아동센터, 공부방 등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펼친다.

또, 불교영어도서관 인근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불교 영어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독서치료·글쓰기 치료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욱 관장은 "불교 논문 영어번역 사업 등을 시행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도서관 수익사업으로 불교와 명상, 정신분석을 접목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관장은 호주 등 해외에서 10여 년 넘게 생활한 국제통으로 정신분석학 석·박사과정을 전공했다. (02)730-0173

조동섭·이은영 기자

국사암 인법당 벽화 등 415점 담겨

문화재청·정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부산·경남2' 발행

문화재청(청장 이강민)은 최근 정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과 함께 한국의 사찰건축물 벽화에 대한 정밀조사보고서 <한국의 사찰벽화-부산광역시·경상남도 2>를 간행했다.

이번에 간행된 <한국의 사찰벽화-부산광역시·경상남도 2>에는 부산 범어사 대웅전(보물 제434호), 산청 울곡사 대웅전(보물 제374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보물 제212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 등 2009년 진행된 부산·경남 동부지역 12개 사찰건축물 415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록됐다.

조사 결과, 부산·경남 동부지역 사찰벽화 주제에는 여래와 나한을 비롯해 악기를 연주하며 하늘을 나는 선인, 신령스러운 동물이 다수였다. 이외에 꽃과 새, 보살, 선종 등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국사암 인법당 벽화(1875년)가 11점 발굴된 것도 중요성과로 평가



부산 범어사 대웅전의 약사삼존도(위)와 <한국의 사찰벽화-부산광역시·경상남도 2>

된다.

문화재청은 정보문화재연구원을 통해 2006년 인천·경기·강원 지역 사찰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사찰건축물 벽화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는 2009년까지 51개 사찰건축물 1776점을 완료했다.

문화재청은 올해에는 경주 불국사 등 대구·경북지역 23개 사찰건축물 벽화 600여 점을 선정해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사보고서



는 벽화의 보존·관리 및 원형보존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그동안 조사된 벽화들 중 중요한 가치를 지닌 벽화를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전북도문화재 지정

전북 익산시(시장 이한수)는 1월 11일 "갈산동 소재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을 전북도유형문화재 제218호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10월 목조보살입상 이운 과정에서 발견된 불상조성기에 따르면 이 불상은 의암 스님이 만력33년(1605)에 최초 조성했다. 1597년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 소실된 것을 1601~1605년간 법당과 삼존불 등 불상을 새로 조성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조전 중기 조성된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의 보존상태도 좋고 시대성이 반영된 양식적 특징을 지닌 점, 정확한 제작연대, 제작자, 유래 등을 알 수 있는 문화재로 복장유물과 함께 전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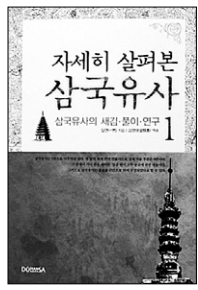
불교적 시각으로 본 '삼국유사'

김영태 명예교수 '자세히 살펴본 삼국유사' 출간

불교적 시각으로 한국 고대 역사서인 <삼국유사>가 풀이됐다.

원로 불교학자인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자세히 살펴본 삼국유사>(도피안사 펴물)를 출간했다.

<삼국유사>는 저자가 일연 스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력'과 '기이'편을 빼고는 모두 불교에 관계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내용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압축해 요약만 기록했기에 불교사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없이는 <삼국유사>를 온전하게 연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가운데 발간된 책은 단순히 불교학자에 의해 서술된 <삼국유사> 이상의 의미를 넘



어 불교계 인사가 처음으로 일연 스님의 후손된 도리를 다한 것이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는다.

김 명예교수는 서두의 '보각국사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일연) 국사가 힘겨워 수집하고 알뜰히 엮은 그 슬한 이야기와 많은 옛일들을 첫 장부터 차례로 자세히 살펴서 그 바른 뜻이 진실되게 드러나도록 풀이하려 애썼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태 명예교수는 1932년 출생해 일생을 불교사상사 연구에 매진해 왔다. 대표저서로는 <신라 불교사상연구> <한국불교사> 등이 있다. (02)419-8704

조동섭 기자

불교학연구회 워크숍 28~30일 약천사서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1월 28~30일 제주 약천사와 제주대에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는 '제주 불교의 과거·불교·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과 '중국 언어와 불교' 주제의 학술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강은 28일 오후 3시 약천사에서 전통문화연구소 문부병 이사장과 제주불교사연구회 황금순 연구원이 각각 '제주민속과 불교'와 '제주불교 신앙형태의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특강한다.

29일 오전 9시 제주대 제주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는 '불전 상용어휘의 중국언어학적 고찰'(안재철 제주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031)980-7775

조동섭 기자

세상을 위한 불교

대한불교진흥원 부설

대원불교문화대학

|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

(구 대원불교대학)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1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www.daewoncollege.kr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 모집기간 | 2010년 1월 4일 ~ 2010년 2월 28일

→ 자세한 사항은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전화 : (02) 707-1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 모집 학과 】

■ 불교심리상담학과 [대학원 PRE-CERTIFICATION COURSE]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제 / 한 학기 3과목 수강)

- 유석학과 상담 / 심신통합 이론과 실제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 자아초월심리와 상담 / 부모 및 가족상담 / 대승불교경전과 상담
- 집단상담 II / 명상과 심리치료 I (MBSR·DBT·ACT·MBCT·MBSC)
- 개인상담 실습 및 지도 / 상담사례연구 및 지도 / 선심리 상담실습
- 명상과 심리치료 II (음악·무용·표현예술)

⇒ 졸업자에 대한 특전 : 불교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수여

※ 강의시간 | 1교시 : 19:00 ~ 20:30 / 2교시 : 20:40 ~ 22:10

※ 수 업 료 | 1학기당 400,000원

※ 장학혜택 | 성적우수장학생, 근로장학생, 승려 50% 할인 등

※ 입학자격

- ① 본 대학 불교심리상담과정을 이수한 자
- ② 정규 대학 과정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서 상담관련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 ③ 졸업 예정인 자

불교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코스 (POST-CERTIFICATION COURSE)

⇒ 국제적 대학원 수준의 '명상심리상담사' 양성
(국제적인 불교심리상담·치료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연계)

⇒ 불교와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워크숍 위주의 토론 강의

※ 불교상담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이론과 실재를 확립하고, 교계 사찰 및 단체, 불교상담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불교심리상담에 관한 교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불교심리상담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함.

※ 지원자격

- 불교 관련 학과 및 심리상담 관련 학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 모집인원 | 00명

※ 이수자에 대한 특전

- 불교심리상담이론 교재 및 자료집 개발 및 발간 참여

- 교계 상담 현장 지원

- 교계 사찰, 단체, 불교상담 관련 대학·대학원, 불교양대학에 감사 지원

※ 수업료 | 1학기당 500,000원 (전원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 등을 별도 지원함)

대 학

【 모집 학과 】

■ 불교인문문화학과 (00명)

불교와 사회철학 입문 / 불교문화콘텐츠의 이해 / 불교와 사회생활학
동양철학의 이해 / 민족문화 속의 불교문화 / 불교미술의 이해
불교의식과 현대음악 / 동서불교문화교류사 등

■ 불교심리상담학과 [대학 PRE-CERTIFICATION COURSE] (00명)

불교심리학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심리검사의 이해
불교상담학 / 성격심리학 / 집단상담 I / 아비담마와 상담
이상심리학 / 선심리와 상담 / 미술치료·음악치료
위빠사나 수행과 상담 / 상담면접 및 기술 등

⇒ 졸업자에 대한 특전 : 불교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수여

■ 불교학과 (00명)

근본불교의 이해 / 중관유식 / 불교의 현대적 이해 / 아함경 강독
원효사상의 핵심 / 불교사회경제론 / 선불교의 이해 / 동서문화교류사
현대의 불교의례 / 불교교리발달사 / 전법교화론 등

※ 강의시간 | 주간반 - 1교시 : 14:00 ~ 15:30 / 2교시 : 15:40 ~ 17:10
야간반 - 1교시 : 19:00 ~ 20:30 / 2교시 : 20:40 ~ 22:10

※ 학과목 이수 | 1학기당 총 6과목 이내 수강 가능
(공통 필수 수강 2과목, 전공 필수 수강 2과목, 자유 선택 수강 2과목)

※ 수업료 | 1학기당 300,000원

※ 장학혜택 | 성적우수장학생, 근로장학생, 승려 50% 할인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수를 이수하여야 함.